

[ 종합 ]

흥수 막아주고 주민 휴식공간 기능까지 '천변저류 생태 호수공원' 조성

전남도, 1,800억 들여 강진천변 등 4곳 추진

평상시에는 주민들의 휴식공간으로 활용되다 흥수 때는 재해를 막아 주는 '천변저류 생태 호수공원'이 전남지역에 조성된다.

전남도는 잦은 기상이변으로 태풍·집중호우가 빈번해 농경지 침수 등 재해 위험이 갈수록 높아짐에 따라 도내 천변 4곳에 빗물을 일시 모아 두는 천변 저류지를 조성하기로 했다. 이 저류지는 빗물을 모아 두었다가 다시 배출하는 기능과 함께 평상시에는 산책로와 자전거 하이킹 도로 등을 갖춘 '생태 호수공원'으로 주민 휴식공간 역할을 한다. 또 산불이 발생하면 저류지 빗물을 진화용수로도 사용할 수 있어 일석삼조의 효과가 기대된다.

도는 올해 전국 최초로 '천변저류 생태 호수공원' 시범사업 대상으로 지정된 지방2급 강진천변에 국비 60%를 포함한 60억원의 예산을 들여 오는 11월 말까지 실시계획 용역을 마치고 12월 중 공사에 들어가 2008년 8월까지 완공할 계획이다.

도는 또 건설교통부가 나주 만봉천, 화순 지석천, 담양 영산강 상류 등 3개 지구에 대한 동일 사업계획을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함에 따라 이들 3개 지구가 내년도 국가사업으로 착수될 수 있도록 1천822억원의 예산 반영을 건의했다.

홍석태 전남도 복지지원과장은 "새로운 방식의 개수공사는 흥수피해 최소화와 주민 휴식공간 조성 및 진화용수 확보 효과를 동시에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박치경기자unipark@kwangju.co.kr

그린벨트내 BTL 사업 훼손부담금 50% 경감

빠르면 내달말부터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민자사업자가 BTL(건설 양도 후 운영) 방식으로 학교시설을 설치할때 훼손부담금 부담이 50% 줄어든다.

건설교통부는 학교시설 BTL사업자에 대해 도로 등 SOC 민자유치사업과 같이 국가·지자체와 동일한 수

준의 훼손부담금을 부담케 하는 내용의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9일 밝혔다.

이에따라 BTL사업시행자는 개정안이 공포되는 내달말부터 감면율 50%의 혜택을 받게 됐다. 개정안은 또 개발제한구역내 농림수산업용 시설설치는 허용하고 있으나 영농을 위한 지하수 개발은 허용되지 않아 주민불편이 초래되고 있는 점을 감안, 영농목적에 한해 지하수 개발을 허용키로 했다.

/연합뉴스

기업들 "퇴직임원 잘 모셔라... 회사기밀 샐라"

'재취업 준비도 지원하고 회사 기밀도 보호하고...'

최근 불거진 현대차 사태가 내부 고발자의 제보에서 촉발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국내 기업들의 퇴직자 관리상태에 새삼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기업들은 퇴직자들의 재취업이나 사회 적응을 지원해주고 재직시 취득했던 회사기밀이 외부로 새나가 악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퇴직 임원들에 대해 1~3년간 급여와 사무실 등을 지원하면서 관리하고 있다.

현대차 사태 내부 고발서 촉발 '비상'

1~3년 급여·사무실 지원... 재취업 알선도

9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은 퇴직 임직원에 대한 관리가 가장 철저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삼성의 퇴직 임원은 사장·부사장급은 3년, 전무급은 2년, 상무급은 1년간 각각 고문, 상담역, 자문역 등의 직책을 부여받아 퇴직 전 연봉의 80%를 받으면서 퇴직 이후를 준비할 수 있다.

삼성은 퇴직 임원들의 모임인 '삼성성우회'가 네트워크를 결성해 상

호교류와 재취업 알선 등을 할 수 있도록 사무실과 직원들을 제공하고 있다.

또 창업을 원하는 퇴직 임원들에게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이들이 연락업무 등을 하는 데 필요한 사무실 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창업지원센터도 운영하고 있다.

현대자동차는 삼성그룹에 비해서는 크게 못미치는 수준이다. 전무급 이상 퇴직자에 대해 1년간 고문

으로 위촉하고 급여의 80%를 지급하며 퇴직 고문들이 모여 일할 수 있는 별도의 사무실을 마련해준다.

LG는 사장직위 이상 근무 후 퇴직한 임원에게 1~2년간 고문직을 부여해 급여 및 차량을 지급하고 있으며 부사장 직위 이하의 임원에게는 2년 한도로 자문역을 부여해 급여를 지급하고 있다.

1992년 개설된 LG클럽은 전현직 임원 교류의 장 역할을 하고 있으며 퇴직 임원들이 새로운 사업을 구상하고 전업을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SK씨는 임원 퇴직시 전무이상은 2~3년간, 상무는 1년간 비상근 고문으로 위촉, 재직시 급여의 80%

정도를 지급하고 있으며 퇴직자들 간의 커뮤니티인 OB모임방(www.skob.skcorp.com)도 운영하고 있다.

금호아시아나도 퇴직 임원을 고문과 자문역 등으로 임명해 50%의 급여와 차량 등을 지원하며 사장급 퇴직 임원에게는 항공권 할인혜택을 평생 제공한다.

포스코는 사장급 이상 퇴직자를 1~2년간 고문으로 위촉해 일정 수준의 활동비를 지급하고 있으며 정년 퇴직 전 1년간 '그린 라이프' 연수회를 마련해 전직이나 창업 등 퇴직 후 생활에 대한 준비와 교육을 진행한다.

/이종태기자 jilee@kwangju.co.kr

안마시술소·단란주점·여관 등 혁신도시에 못 짓는다

건교부 '혁신도시 기본구상' 마련

나주 공동혁신도시를 비롯한 지방이전 175개 공공기관이 입주할 혁신 도시는 청소년 유희시설 설치가 엄격히 제한된다.

또한 혁신도시는 오는 2020년 목표 인구 2만~5만명·규모 50만~250만 평으로 조성되며, 도시건설에는 마스터플랜(MP)제도가 도입돼 계획 및 설계의 일관성을 꾀하게 된다.

건설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혁신도시 기본구상'을 마련, 시·도와 사업시행자에게 하달하고 이를 토대로 지역별 기본구상을 짜도록 했다고 9일 밝혔다.

기본구상에 따르면 혁신도시의 주거지역은 24시간 연구·개발시설의 활용이 가능하도록 중심지구 가까이 배치하고, 주거지역에는 안마시술소와 단란주점·여관 등 청소년 유희시설의 설치를 제한토록 했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제1회 매니페스토 아카데미' '5·31 스마트 매니페스토 정책선거 추진본부'가 주최하고 광주일보가 후원한 '제1회 매니페스토 아카데미'가 지난 7일 오후 광주시 서구 치평동 광주시선관위에서 열렸다. 참가 예비후보자들이 매니페스토 실천을 다짐하고 있다. /이명주기자 mjna@kwangju.co.kr

외환은행 '혈값매각' 본격수사

검찰, 정·관계 로비 등 대규모 비리 포착 전 경영전략부장 등 2명 구속영장 청구

외환은행이 2003년 미국계 투자회사인 론스타에 혈값에 팔리는 과정에 정관계 로비 등 대규모 비리가 있었다는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가 본격화했다.

대검 중수부는 9일 국회 재정경제위원회가 고발한 외환은행 혈값매각 의혹 규명작업이 그동안 감사원에서 이뤄졌으나 비리 단서들이 최근 포착됨에 따라 감사와 별도로 은행 매각 관련

수사를 독자적으로 진행키로 했다.

검찰은 2003년 8월 당시 외환은행 매각자문을 맡아 12억원의 자문료를 받은 엘리엇홀딩스 박모 대표와 박씨로부터 수억원을 전달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당시 외환은행 경영전략부장 전모씨의 구속영장을 9일 청구했다.

박씨와 전씨 구속 여부는 10일 오후 서울지방법원 영장실질심사를 거쳐 오후에 결정될 예정이다. 검찰에

따르면 박씨는 업무상 횡령과 특경가법상 중재, 전세는 특경가법상 수재, 업무상 횡령 혐의를 받고 있다.

채동욱 대검 수사기획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외환은행 혈값매각 의혹과 관련해 수사 중인 내용을 중심으로 감사원과 협의하고 자료를 교환하며 상부상조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론스타 사건과 관련한 출국 금지 대상자가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고 밝히며 그동안 수사의 초점이었던 탈세와 횡령, 외환 불법대출 의혹 외에 외환은행 혈값매각 관련 비리 규명에 수사력을 집중할 계획임을 시사했다.

/최원일기자 cki@kwangju.co.kr

동원호 석방노력 재차 요청

정부, 소말리아 과도정부에

정부가 소말리아 인권 해역에서 일어난 제628 동원호 피랍사건과 관련, 소말리아 과도정부에 석방을 위한 노력을 재차 요청했다.

외교통상부 당국자는 9일 "염기섭 주 케냐 대사가 지난 6일 소말리아 과도정부 대통령 등을 면담한 데 이어 8일에도 (모하메드 알리) 게디 과도정부 총리를 다시 면담해 조속한 석방을 위한 협조를 당부했다"고 밝혔다.

게디 총리는 이에 대해 조속한 석방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약속했다고 이 당국자는 전했다.

/연합뉴스

1면 '지방선거 문화'서 계속

또 지방 정가에는 모 정당에서 후보로 나서는 기존 기초단체장에게는 20억, 처음 나서는 기초단체장 후보에게는 10억, 광역의원 후보에게는 5억 원을 특별당비로 내라고 종용하고 있다는 소문이 무성하게 나돌고 있다. 때문에 상당수 후보들이 이렇게 하면 선거 출마해야 하는지 고민하는가 하면 일부 후보는 출마를 아예 포기하기도 했다.

박광우 참여자치21 사무처장은 "조직동원은 선거 과정에서 여론의 자연스런 형성과 흐름을 막을 뿐 아니라 왜곡까지 조장한다"며 "또 합법으로 포장된 돈 선거는 건전한 선거 문화 정착과 유능한 공직자 및 의원의 선출을 막는다"고 지적했다.

빛의만평

- 김중두



구태의연하고, 케케묵은 인간들!

금호동 코아루아파트 단지내 상가 입주자 모집공고

Real estate advertisement for '금호동 코아루아파트' (Gomho-dong Coaru Apartment) including details about the building, location, and contact information for the developer.